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전주매일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음 8월 3일) 제 189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국 최초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OPEN

▶ 전북 삼락 로컬마켓 개장

작년 전북 혁신도시에 착공 광역직매장·농가레스토랑 카페·농어촌센터 등 구성 마을상품 물류 활성화 등 로컬푸드 고도화 기반 마련

전북도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으로서 작년 5월 전북 혁신도시에 착공한 '전북삼락 로컬마켓'이 21일 오전 10시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사진 2면)

전북삼락 로컬마켓은 광역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카페,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입주민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수요를 충족하는 도농상생 모델로서, 대표적인 삼락농정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삼락 로컬마켓 건립은 민선 6기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자, 도내 14개 시군 우수 농·특산물이 한 곳에 모이는 전국 첫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사례이다.

전국적으로도 시·군으로 한정됐던 로컬푸드 범위를 광역으로 확대하고,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카페,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입주민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수요를 충족하는 도농상생 모델로서, 대표적인 삼락농정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한 이래, 중소농·고령농의 연중 기획생산에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잔류농약 검사, 유통시설 보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농협 하나로마트 삼인삼, 6차 안테나삼, KTX역 등에 다양한 형태의 직매장 29개소가 설치되어 로컬푸드 선진지로써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제도를 운영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개장을 통해, 마을상품의 시·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 오늘 개막... 이번 주말, '야생' 을 즐기자



완주 와일드푸드축제가 '와일드에 풍덩 빠지다'를 주제로 22일 개막한다. 24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와일드푸드축제는 야생먹거리와 지역의 '향수'를 접목한 것으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완주=이종복 기자

군 간 물류를 활성화하고, 도 단위 기획생산 체계를 준비하는 등 로컬푸드 고도화를 위한 2단계 제도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선농산물은 출하품목과 시기 협의를 위해 14개 시·군 로컬푸드 주체가 참여하는 '기획생산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마을상품, 6차 인증품 등 가공품 입점의 전반적인 통합관리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전북마을통합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신달호 친환경유통과장은 "생산자·소비자·지역이 행복한 '삼락마켓이 혁신도시에 개장함에 따라, 제값받는 전북 삼락농정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전국 로컬푸드 정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완주=이종복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내년도 전북도 생활임금 8600원 확정

최저임금 7530원 대비 114.2%... 도·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수혜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채준호)는 21일, 도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적용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시급)을 토대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의 기준생활비에 4년간 소비자물가와 2018년도 타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이는 2018년 최저임금(7,530원)대비 114.2% 수준이다.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액 결정은 여러 지자체의 사례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산정했으며, 생활임금 결정에 따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보다 월 22만3,630원을 더 받게 된다.

채준호 위원장은 "2018년 전북도 생활임금 적용으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80여명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대학생 클럽대항' 23일 개최

'2017 전북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이 오는 23~24일 이틀간 전북 일원에서 개최된다.

21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열리는 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이 오는 23~24일 열린다.

이번 클럽대항에서는 축구와 농구, 볼링 등 3개 종목이 열리며 도내 50개 클럽 616명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게 된다.

축구는 전주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리며 농구와 볼링은 각각 전북대학교 체육관과 익산 한성볼링장에서 열린다.

전북도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대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도내 4인 추석 차례상 비용 지난해보다 4.3% 줄어

전주에서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4.3% 감소한 19만386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통시장 3곳과 백화점 1곳, 대형마트 7곳, 중소형마트 13곳 등 모두 24곳에서 추석 상차림 비용(4인 기준, 29개 품목)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추석 제수용품 평균 구입비용은 총 19만3862원으로 전년 20만2663원에 비해 4.3%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이 22만6841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형마트 19만8494원, 중형마트 19만2627원, 전통시장 16만9809원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가격이 가장 비싼 백화점과 가장 저렴한 전통시장은 비용이 16.9% 차이가 났다. /뉴스이



멕시코감자 '히카마' 진안 용담서 재배 성공

진안군 용담면에서 열대작물인 히카마(jama) 재배에 성공한 농업인이 있어 화제다.

21일 진안군에 따르면 용담면 송풍리 화풍마을에 사는 김영갑(59)씨는 최근 건강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히카마 재배에 성공했다.

멕시코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는 히카마는 미국 허핑턴포스트지가 선정한 '세계 20대 건강식품'에 이름을 올렸고, '할빈' 또는 '멕시코감자'라고도 불린다.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미네랄·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열량은 100g당 38kcal에 불과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씨는 "지난해 시험재배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올해는 용담면 송풍리 정두들 노지 2000㎡에 히카마를 심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초 수확을 앞두고 있다"며 "구근과 씨앗의 발육상태가 좋아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매일 INDEX

2면 - 문화재 활용 공모 전국 최대 3면 -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5면 - 부안 서림고 지원 TF팀 가동 6면 - "지금 한국에 투자해야 할 때"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제 7대 진안군의회 | 군민郡民 중심中心의 민주의회民主議會



진안군의회